

회원 투고

대청도와 소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의 보호실태

이호준 · 신정섭*

한국자연보전협회, *한국생태문화연구소

동백나무(冬柏)는 차나무과에 속하는 한국의 상록활엽수를 대표하는 수종의 하나로 생약명으로는 동백유(冬柏油), 춘유(春油)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개화시기에 따라 춘백(春栢), 추백(秋栢), 동백(冬栢)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차를 다려서 마시기 때문에 산다(山茶)라고도 부른다. 차나무과에 속하는 동백나무속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약 100여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인공적인 품종 약 200여종이 미국, 일본 등에서 정원수로 이용되고 있다.

동백나무의 학명은 *Camellia japonica* Linne 인 것으로 보아 일본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생각되며 일본에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에 자생지가 일본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나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산동성), 일본(本州, 九州, 四國)의 따뜻한 지방에 주로 자생하고 있다. 내염성이 강하고 양지성이며 장일성으로 맹아력도 강하다. 뿐만 아니라 관상용(정원수), 공업용, 이노제, 식용유, 화장품용, 머리기름, 올리브유 대용 등 매우 중요한 자원식물이다.

한국에서의 동백나무 분포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비롯하여 울릉도, 전남북, 경남의 도서지방, 충북, 경기도의 도서

지방을 비롯해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까지 분포하며 북한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더 복잡하여 분포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백나무의 분포지는 위에서 언급한 제주도와 울릉도를 비롯해서 홍도, 흑산도, 대청도의 동백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66호, 인천 옹진군), 백련사의 동백나무림(천연기념물 151호, 전남 강진군), 미량리 동백나무림(천연기념물 169호, 충남 서천군), 고창 삼인리의 동백나무림(천연기념물 184호, 전북 고창군 선운사), 거제도 학동의 동백나무림(천연기념물 233호, 경남 거제시), 오동도의 동백나무림 등은 잘 알려진 동백나무림이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우수한 동백나무림은 매우 많다. 본인들이 현재까지 직접 답사하여 확인한 남해 도서지방의 거문도, 백도지역, 진도와 인근도서지역, 완도와 인근도서지역(생일도, 보길도, 청산도 등), 거금도, 거문도, 소거문도, 백도, 금오도, 서남해 도서지방인 조도지역(하조도, 죽향도, 독거도, 청등도 등), 서해의 외연도 지역(오도, 황견도, 대청도), 덕적군도의 인근도서(울도, 백아도), 더 복잡하여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역에서 우수한 동백나무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청도, 소청도의 동백나무 북한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는 지리적으로 난류와 한류가 교차되는 곳으로 난대성 식물의 자생 북한지로 중요한 지역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해 쪽의 동백나무림은 울릉도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동백나무의 자생북한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의 연평균 기온은 -4°C 미만이며 -14°C 까지 떨어지는 기간도 있으나 그 기간은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청도는 북위 $37^{\circ}53'$, 동경 $124^{\circ}43'$, 소청도는 북위 $37^{\circ}35'$, 동경 $124^{\circ}45'$ 에 위치하고 있어 울릉도보다는 대청도가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백나무의 북한지로는 대청도의 동백나무림(천연기념물 66호)이 자생북한지로 확인되고 있다.

① 대청도 동백나무 북한지

본인이 3차(1981년, 1987년, 2000년)에 걸쳐 조사한 바에 의하면(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대청도의 동백나무림은 60여년 전만하더라도 직경 약 30 cm, 수고 약 3 m인 동백나무가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나 그 후 불법벌채(꽃다발용, 연료림, 분재용 등)에 의해 다 파괴되었다고 한다.

동백나무의 실태를 살펴보면 면소재지인 선진동에서 도내를 일주하는 도로를 따라 사탄동 북쪽 표고 약 240 m 지점에 3群으로 분포하고 있다. 1987년 조사에 의하면 줄기 총수는 약 75개체(절취된 후 맹아에 의해 생긴 줄기는 제외)로 각 군의 수고는 2~3 m, 줄기 밑의 최대 직경은 3주가 12 cm였으며 기타는 4~6 cm, B군과 C군 사이의 거리는 9 m였으며 A군은 가로x세로의 최대 폭이 12.4×10.5 m, B군은 9.6×3 m, C군은 5.6×3.5 m, A군은 33개체, B군은 15개체, C군은 27개체였으며 사진 1에서와 같이 밀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실태로 보았을 때, 60년 전에 자생하고 있던 동백나무림이 파괴되고 난 후에 누군가에 의해 인공조림 되어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후에 이 동백나무림을 자생북한지로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 66호로 지정하여 자생북한지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에 인공조림 되었다면 천연기념물로서의 의미는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

② 소청도의 동백나무 실태

이와 같이 대청도의 동백나무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으나 대청도로부터 남동방향 약 10 km에 위치한 소청도의 동백나무림은 대청도나 소청도의 주민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소청도의 동백나무림은 1987년 7월에 조사한 바 있으며(사진 2) 최근에는 2005년 7월에 조사를 하였다. 소청도의 동백나무림(사진 3, 2005년)은 예동마을 천주교회 후사면 김대건 신부 동상부근을 중심으로 약 67주 확인하였으며 수고는 약 2~3.5 m, 흉고 직경 14~40 cm로 확인되었다.

1987년 조사에서 동백나무가 분포하는 곳의 식생은 극소수의 곰솔과 팽나무, 소나무,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신갈나무가 혼생하고 있었으며 그 하상에 새, 억새, 솔새, 개솔새 등의 화본과 식물을 우점으로 하는 초지로서 방목에 이용되고 있었으며 보호용 철망이 있었다.

그러나 2005년 7월의 조사에서는 1987년 조사에서 확인된 팽나무, 곰솔, 소나무,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신갈나무가 생장하여 교목층을 형성하고 동백나무는 이와 같은 교목층하에 아교목층인 자귀나무, 뽕나무와 혼생하고 있었으며 교목층의 수관으로 그 하

상의 동백나무의 생장은 불량하였으며 확인된 67주 중에는 5주가 고사하거나 고사상태(사진 4, 5)에 있었고 보호상태는 불량하였다. 관목층에는 노박덩굴, 담쟁이덩굴, 칩, 붉나무, 보리밥나무, 장구밥나무, 짚레, 무화과, 초본층에는 수영, 줄딸기, 미역취, 참나리, 물쭉, 닭의장풀, 꼭두서니, 쭉 명석딸기, 주름조개풀, 며느리배꼽, 세모래덩굴, 닭의덩굴, 박주가리, 쥐방울덩굴, 비쭉, 여뀌, 오리새, 질경이, 짚신나물, 빗자루, 샷갓나물, 밀나물, 참취, 그늘사초, 머루, 달맞이꽃, 왕고들배기, 하늘타리, 감국, 청가시덩굴, 으아리, 돼지풀, 갈퀴덩굴, 이고들배기, 기린초, 담배풀, 딱지꽃, 뽕속, 마, 쥐손이풀, 포아풀, 조뱅이, 참새귀리, 말냉이 등 45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숲이 우거져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 정도였다.

이 외에도 1987년 조사에서 소청도에는 예동마을에서 동쪽으로 약 700 m 지점과 1.5 km 지점의 급경사지(흰바위부근)에 수고 1~1.5 m 정도인 동백나무가 13주와 34주가 분포되어 있었는데(사진 6) 2005년 7월 조사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해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소청도 예동마을, 경동민박의 주인인 라상선 氏의 말에 의하면 소청도는 도처에 노거수의 동백나무 수백주가 있었으며 동백꽃이 피어 섬을 붉게 하였으나 50년 전부터 연료림, 분재, 꽃다발용 등으로 훼손되기 시작하여 현재의 동백나무 밖에는 볼 수 없다고 한다.

소청도의 동백나무림은 수령이나 수고면에서 대청도의 동백나무를 능가하고 과거에 분포하고 있던 본래의 동백나무림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으며 위도, 경도가 대청도와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소청도의 동백나무림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청도 동백나무의 보호대책

① 동백나무는 관상용(정원수), 공업용, 약용, 식용유, 화장품용, 머릿기름, 올리브유대용, 이노제 등으로 이용되며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 등의 난대지역에만 분포하는 희귀자원식물이기 때문에 철저한 보호대책이 요구된다.

② 특히 소청도 예동마을 후사면의 동백나무는 대청도의 동백나무에 비해 수령이나 크기면에서 훨씬 능가하며 과거 소청도 동백나무의 잔존물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해야 한다.

③ 소청도 동백나무림의 교목층을 제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상을 정비하고 대청도의 동백나무림과 같이 표시판과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

④ 소청도와 인근 주민에게 동백나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묘목을 조성해 식재, 육성함이 가하다고 본다.



사진 1. 1987년 조사시 대청도의 동백나무.
(천연기념물 제66호)



사진 2. 1987년 조사시 소청도의 동백나무.



사진 3. 2005년 7월 1일 조사시 소청도의 동백나무.



사진 4. 2005년 7월 1일 조사시 소청도의 동백나무.
(고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5. 2005년 7월 1일 소청도의 동백나무.
(고사목)



사진 6. 1987년 조사시 소청도의 동백나무.
(흰비위 부근의 급경사지)